

보도 일시	2023. 2. 16.(목) 조간 2023. 2. 15.(수) 11:00	배포 일시	2023. 2. 15.(수) 06:00
담당 부서 <총괄>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태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류선희 (044-200-5229)

## 해양문화 가치를 담은 상품 개발에 도전하세요

### -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해양문화상품 개발 공모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태만)은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계승하고, 이러한 가치를 담은 우수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양문화상품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해양유물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2월 16일(목)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www.mmk.or.kr)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공개된 공모전 주제인 국립해양박물관 로고와 올해의 대표 유물 6점\*을 확인한 후 이를 활용해 문화상품을 제작하여 국립해양박물관에 접수하면 된다.

\* 화조어해도 8폭 병풍, 통영지도나전장, 조선통신사선, 해시계, 뉴튼 일가의 지구의, 천구의, 투구

문화상품은 판매가 4만 원 미만의 제품으로 공예품, 생활소품, 액세서리, 문구·사무용품, 그리고 어린이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서적이거나 음반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월) 9시부터 5월 8일(월) 16시까지이며, 완제품이나 시제품, 그리고 상품 가격이 포함된 제품설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모상품은 2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3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심사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당선작을 상품으로 발송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문화상품은 국립해양박물관이 2,800만 원 상당\*을 직접 구매하여 기념품으로 활용하고,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상품 소개 및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 1등 1,200만 원(1점), 2등 각각 800만 원(2점) 상당의 상품 구매

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장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이 우리 박물관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태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류선희 (044-200-5229)
담당 부서	국립해양박물관 대외협력팀	책임자	팀 장 반영난 (051-309-1781)
		담당자	학예사 김승신 (051-309-1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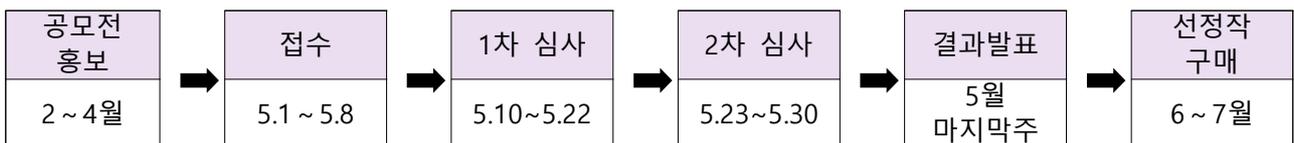
## 참고 1

## 국립해양박물관 우수문화상품 개발 공모전 개요

- 공모주제 : ①국립해양박물관 MI, ②박물관 대표 유물 6점
- 공모대상 : 판매가 4만원 미만의 공예품, 생활소품, 액세서리, 문구사무류, 어린이 상품 등(서적 및 음반 제외)
- 공모 및 접수
  - (신청조건) ①공모대상 품목을 제작·생산하는 예술가 또는 기업, ②최종원산지가 대한민국일 것, ③지원자가 저작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상품 중 관련법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하는 상품은 해당 조치 완료 후 신청할 것, ④지원자당 최대 5개까지 신청 가능
  - (실물접수) 완제품(시제품 가능), 상품설명서가 포함된 패키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품작에 대한 가격(VAT 포함)을 제시할 것
- 평가항목
  - 해양성(30점), 작품성(40점), 수용성(20점), 안전성(10점)
- 수상작 선정 및 혜택
  - (수상작 선정) ① 1차 심사-대국민 투표(20점), ② 2차 심사-평가항목에 따른 채점 결과 높은 점수 순으로 총 3점 선정(1등(1점), 2등(2점))
  - (혜택) 수상작(문화상품)\*은 박물관이 구매하여 기념품으로 판매

\* 1등 1,200만원(1점), 2등 각 800만원(2점) 상당의 상품 구매

### 추진일정



<p>사진</p>	
<p>유물명</p>	<p>&lt;화조어해도 8폭 병풍&gt;</p>
<p>설명</p>	<p>위쪽에는 화조도 아래쪽에는 어해로 구성되어있는 민화 병풍이다. 산수와 인물을 제외한 하늘을 나는 새와 물의 가축을 비롯한 맹금(猛禽) 등 야생 길짐승과 물고기로 대변되는 <b>물속의 다양한 어족(魚族)</b>, 그리고 각종 식물 등이 등장한 그림 전체를 칭한다. 이들 동식물이 지니는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움과 각각의 좋은 상징성으로 선사 시대부터 오랜 세월 즐기치게 그려졌다.</p>
<p>사진</p>	
<p>유물명</p>	<p>&lt;통영지도나전장&gt;</p>
<p>설명</p>	<p>일반 목가구의 문양과 달리 <b>나전으로 통영지도를 묘사</b>하여 장식한 농이다. 농의 전면에는 통영지도를, 좌·우측면과 천판에는 산수 문양을 장식하였다. 이 자료는 농이 만들어진 <b>19세기 통영 지역의 바닷가 마을 모습</b>을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p>

<p>사진</p>	
<p>유물명</p>	<p>&lt;조선통신사선&gt;</p>
<p>설명</p>	<p>조선통신사선은 선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약 250년간 12회에 걸쳐 파견되어 양국간 평화관계와 문화교류 및 정치·외교 현안을 논의한 <b>통신사들이 탔던 외교선박</b>으로 당시 조선시대 일반적인 선박보다 크고 화려한 의장을 갖춘, 일본의 조선기술 보다 앞선 건조 능력을 잘 보여주는 <b>대표적인 한선</b>이다.</p> <p>통신사선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와 『사행록(使行錄)』, 『헌성유고(軒聖遺稿)』 및 우리나라와 일본에 남아 있는 그림 자료 등이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에 복원된 조선통신사선은 위와 같은 기록을 근거로 마지막 사행에 사용된 선박을 바탕으로 1/2로 축소 복원한 것이다.</p>
<p>사진</p>	
<p>유물명</p>	<p>해시계</p>
<p>설명</p>	<p>현 위치의 위도 경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나침반 겸 해시계이다. 뒷면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의 지명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p>

<p>사진</p>	
<p>유물명</p>	<p>&lt;뉴튼일가의 지구의 천구의&gt;</p>
<p>설명</p>	<p>19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지도 제작자인 존 뉴튼 일가가 만든 지구의·천체의 세트이다. 지구의, 천체의, 마호가니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1846년에 제작하였다. 동해를 "GULF OF COREA"로 표기하였고, Cook 선장의 항해로가 기록되어 있다.</p>

<p>사진</p>	
<p>유물명</p>	<p>&lt;투구&gt;</p>
<p>설명</p>	<p>조선 후기에 두정갑주에 사용된 투구이다. 전체적으로 투구 품이 좋고 상부 장식이 손실되었으나 장식이 정갈하고 투구 표면의 '용문', '봉황문', '당초문' 등의 장식기법이 정교하고 세련되기에 신분이 높았던 인물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p>